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미래 포스트에디터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그 실례*

윤미선** · 김택민 · 임진주 · 홍승연***
(한국외대)

1. 서론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기계번역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기계번역의 발달로 우리는 번역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다국어 전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회사 에버트란의 번역가 모집 공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부족하나마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안 해주신 이상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Critical Thinking on Translation 수업을 함께 수강한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윤미선(제1저자)

*** 홍승연(교신저자)

번역회사 에버트란에서 포스트에디터를 모집합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번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ICT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기에 따라 번역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오늘,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기술(Neural Machine Translation)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버트란은 자체 개발한 번역지원프로그램 <비주얼트란 메이트>와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기술(NMT)을 사용하는 구글번역과 파파고를 이용한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모집 자격 및 우대 조건

- 어문학 계열 전공자
- 포스트에디팅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번역가
- 번역 경력자
- 기존 CAT툴 경험자(비주얼트란 사용자 우대) (밑줄은 연구자 강조)

상기의 공고)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 업계에서 번역가의 업무 영역은 기계번역을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하는 포스트에디터로 확장되고 있다. 핼(Pym 2013)은 기계번역이 언젠가는 번역가를 포스트에디터로 바꾸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업계에 포스트에디팅이 차지할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덴스머(Densmer 2014) 역시 기계번역이 등장하면서 저비용으로 신속한 번역작업을 하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 번역물에 대한 품질을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만족할 만큼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포스트에디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포스트에디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포스트에디팅을 위해서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포스트에디팅을 의뢰한 고객과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는 포스트에디터간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 핵심이 된다. 번역가는 고객의 요구수준(포스트에디팅의 적용 수준, 작업 소요시간 등)에 따라 포스트에디팅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데(곽중철과 한승희 2018: 2-3) 이를 위해서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

1) 출처: <http://www.evertran.com/Contents/Company?mnx=7>

드라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포스트에디팅 과정의 생산성과 결과물의 품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된 공식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그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Perez 2012; Flanagan & Christensen 2014; Densmer 2014; Hu & Cadwell 2016). 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은 언어구조가 유사하여 상대적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한 언어 쌍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영한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은 언어쌍이 유사한 기계번역 결과물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영어-한국어 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영한 기계번역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영어-한국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영어-한국어 쌍의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여러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 2) 연구질문 1)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영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했을 때 적용이 어려운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연구질문 1, 2)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어-한국어 쌍에 적용할 수 있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해 보고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작적으로 정리한다(연구질문1 해결). 그 다음 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번역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에게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한 후(연구질문2 해결)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영어-한국어 쌍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연구질문3 해결).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포스트에디팅의 정의와 유형

포스트에디팅이란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감수하는 것이다(Mossop 2014: 199). 기계번역 후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면 인간이 번역물을 생산하여 감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속도와 생산성면에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O'Brien 2011). 포스트에디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되는가에 따라 라이트 포스트에디팅(Light Post-Editing / 이하 LPE)과 풀 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 /이하 FPE)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다른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LPE와 FPE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텐스머(2014)는 LPE의 핵심을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factual correctness)’과 ‘충분한 정도(good enough)’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LPE는 원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결과물을 읽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허용되는 수준이다. 반면 FPE는 전문 용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며 문법적인 실수가 없어야 한다. 또한 편집 후에는 마치 처음부터 도착언어로 작성된 것과 같은 효과로 읽혀져야 한다. 후와 캐드웰(Hu & Cadwell 2016: 347) 역시 LPE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understandable)’의 수준으로 에디팅을 하는 것이고, FPE는 ‘인간이 번역하는 것과 같은(human like)’ 수준으로 에디팅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TAUS(Translation Automation User Society 2016)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TAUS에서는 LPE가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fit for purpose)’를 요한다면, FPE는 ‘출판 가능한 수준(publishable quality)’을 요한다고 제시한다.

위와 같은 정의는 LPE의 ‘적당한 수준’과 FPE의 ‘인간번역 수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준의 모호성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여 KantanMT(2015)는 LPE와 FPE 사이에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다. 페레즈(2012)는 LPE 가이드라인과 FPE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기보다 ‘유연한(flexible)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포스트에디팅이 상황에 따라 LPE 혹은 FPE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포스트에디터의 경우 대개 FPE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양분해 살펴보는 대신 ‘유연한 의사결정 도구(flexible decision tool)’로

서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곽중철과 한승희(2018)가 포스트에디팅 유형에 대한 평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LPE와 FPE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집중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언어구조가 유사한 언어쌍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비해 영어-한국어 쌍의 기계번역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결국 기계번역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아직 영어-한국어 쌍에서는 LPE와 FPE를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두 포스트에디팅을 구분하기 보다는 영어-한국어 쌍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한다.

2.2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영역 1)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LPE 가이드라인, FPE 가이드라인, flexible 가이드라인)’(O’Brien 2010; Perez 2012; Flanagan & Christensen 2014; Densmer 2014), 2) ‘기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Hu & Cadwell 2016), 3) ‘교육에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적용(Flanagan & Christensen 2014; 마승혜 2018)으로 정리할 수 있다.

2.2에서는 선행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에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 Christensen 2014)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다.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은 TAUS(2010)에서 제시한 ‘충분한 정도(good enough)’와 ‘출판 가능한(publishable)’ 수준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연구에 적용했다. 이들은 TAUS 가이드라인의 항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에디터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지적하면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TAUS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회고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출판 가능한 수준’의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열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한 기계번역 결과물을 활용하면서도 목표독자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되 단지 글의 흐름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장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구두법과 맞춤법을 비롯한 문법 오류는 수정해야 하며, 형식은 유지시켜준다. 전문용어는 정확하게 번역하고 번역할 필요가 없는 용어는 확인한다. 만약 목표독자에게 부적절 하거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 할 것을 권장한다.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의 연구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언어구조가 유사하지 않은 영어-한국어 쌍의 포스트에디팅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가이드라인은 국내 통번역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TAUS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회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와 코멘터리 등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 및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시도했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2.3 본 연구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본 연구는 후와 캐드웰(2016)이 정리한 다섯 개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O’Brien 2010; Mesa-Lao 2013; Flanagan & Christensen 2014; Densmer 2014; TAUS 2016)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 개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것으로 모두 LPE(혹은 rapid, fast PE)와 FPE(또는 heavy PE)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LPE와 FPE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FPE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한다. 또한 페레즈(2012)가 제시한 ‘유연한(flexible)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새롭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후와 캐드웰(2016)의 FPE 가이드라인과 페레즈(2012)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연구자 재정리)

Hu & Cadwell(2016)의 FPE						PEREZ (2012)
연구 항목	TAUS (2016)	O'BRIEN (2010)	FLANAGAN & CHRISTENSEN (2014)	MESA - LAO (2013)	DENSMER (2014)	
정확성	ST와 같은 의미 전달	중요	중요	-	이주 정확	-
용어	주요 용어 정확	주요 용어 정확	주요 용어 정확	용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수정	일관적, 적절한 용어 사용	용어 검색 필요, 잘못된 용어 수정
문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수, 성, 격, 시제, 태 등의 오류 수정
의미	정확	-	정확	정확	정확	-
구두점	정확	기본 규칙 적용	기본 규칙 적용	-	정확	수정
맞춤법	기본 규칙 적용	기본 규칙 적용	기본 규칙 적용	-	정확	수정
통사 구조	정상적인 통사구조	-	정확	-	목표 언어 관습에 맞게 수정	품사, 구 구조 등의 통사오류 수정
문체	ST에 상응하는 문체 사용	문체 및 텍스트관련 문체는 무시	-	중요하지 않음	일관적, 적절, 유창한 문체	수정
문장 재구성	-	-	언어 사용이 적절할 시 재구성 필요 없음	의미적으로 맞다면 재구성 필요 없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다시 쓰기	MT 누락이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거나 텍스트용집성 및 통일성에 문제 있을 시 수정
문화	필요 시 수정	필요 시 수정	필요 시 수정	-	모든 문화관련 용어 수정	필요 시 수정
정보	완전히 전달	완전히 전달	완전히 전달	-	-	필요한 정보 명시화
형식	정확	모든 태그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 위치	ST와 동일한 태그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 위치	-	정확 (태깅포함)	-
기타 (주요 사항)	기본 규칙 의거한 하이픈 사용, 인간 번역 품질 기대	기본 규칙 의거한 하이픈 사용, 기대 처리 속도 높음, 기대 품질 수준은 중간	Raw MT를 최대한 사용, 무번역 용어는 클라이언트 요청인지 확인 필요	단어 정확할 시 수정 필요 없음, 반복되는 부분도 수정 필요 없음	ST에 충실한 번역, 불필요 혹은 과다 번역된 부분 삭제, 인간 번역 품질 기대	-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대양상을 보인다. 특히 ‘용어’와 ‘문법’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항목으로 설정되어있다. 또한 원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정확성’에 있어서도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문장 재구성’의 여부와 ‘문화’, ‘정보’ 항목도 필요 시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서양어권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구두점의 일종인 하이픈 사용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다. 한국어에는 하이픈과 모양은 동일하지만 훨씬 국한된 기능만을 하는 붙임표라는 문장부호가 있다. 영어의 하이픈은 한국어의 붙임표로 온전히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김도훈 2013: 191-2), 하이픈의 처리방법에 대한 언급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문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TAUS와 덴스머는 원문에 상응하는 적절한 문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치 모국어인 듯 유창하면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문체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페레즈도 문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은 TAU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트에디팅 실험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raw MT 결과물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라’는 지침과 ‘ST에 상응하는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서로 충돌하여 작업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체와 관련된 항목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했다. 또한 오브라이언과 메사-라오는 문체가 포스트에디팅 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목표텍스트의 기대품질(기타항목)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TAUS와 덴스머가 인간번역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오브라이언은 기계번역 본래의 품질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번역물을 기대한다. 또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최대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메사-라오 역시 단어가 반복되더라도 의미만 정확하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번역물의 품질을 인간번역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다. 후와 캐드웰(2016)이 우려하듯,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인간번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 본래 기계번역의 저비용·고효율이라는 장점이 과연 달성되는 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서구권 중심의 가이드라인인 <표 1>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

에 기반하여 실험에 적용할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표 2>를 제시한다.

<표 2> 본 연구에 적용할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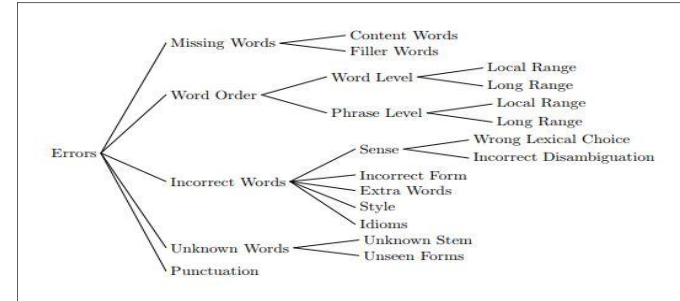
항목	세부 가이드라인
정확성	원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용어	주요 용어가 정확해야 함
문법	정확해야 함
의미	정확해야 함
구두점	정확해야 함 (원문의 하이픈은 붙임표 혹은 다른 문장부호로 적절히 대체해야함)
맞춤법	기본 규칙이 적용됨
통사구조	정확해야 함
문체	원문에 상응하는 적절한 문체 사용
문장 재구성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정
문화	필요 시 수정
정보	완전히 전달해야 함
형식	정확해야 함
기타	재번역 수준의 문장 재구성을 하지 말 것

<표 2>의 가이드라인은 서구권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리 한 것일 뿐, 여전히 수정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추후 실험연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영어-한국어 언어 쌍과 국내 환경에 맞는 완성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것이다.

2.4 영한 기계번역 오류 분석 기준

실험연구를 하기에 앞서 연구자 네 명은 학생들에게 제시할 과제를 사전에 포스트에디팅해 보는 파일럿 작업을 거쳤다. 이니셜 파일러팅(initial piloting)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계번역된 텍스트에 오류가 충분히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기계번역 오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이다.

<그림 1> 빌라 외(2006)의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본 연구는 빌라 외(Vilar, Xu, D'Haro & Ney 2006)의 기계번역 일반적 오류 유형(<그림 1>)을 기준으로 오류 분석을 하였다. 다만 <그림 1>의 기계번역 오류 유형은 단어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해당 표에서 추가 혹은 삭제할 항목을 결정하고 <표 3>과 같이 본 연구의 설계에 맞게 영한 기계번역 오류를 정리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적용한 영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

영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		코드
부정확한 단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단어 (semantic error)	SE
	의미는 통하지만 형태적으로 부정확한 단어 (incorrect form)	IF
	불필요하게 추가된 단어 (added words)	AW
	전반적인 문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style)	ST
	부정확한 관용어 인식 (idioms)	ID
통사구조	단어 차원 어순 문제 (word order)	WO
	구(Phrase) 차원 어순 문제 (phrase order)	PO
	기타 통사구조 오류 (other syntactical errors)	OS
문법	구두점 관련 오류 (punctuation)	PU
	기타 문법 오류 (other grammatical errors)	OG
일관성	일관적이지 않은 단어 사용 (non-consistent word use)	NC
누락	단어의 누락 (Missing words)	MW
무번역	단어, 구 차원에서의 무번역 (non-translation)	NT
알려지지 않은 단어	TT에는 대응어가 없는 단어 (unknown words)	UW

<표 3>에는 통사구조와 문법 항목을 추가하였다. 통사구조 안에는 ‘어순’ 항목 외에도 ‘기타 통사구조 오류’를 추가하여 주술 호응 문제 등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계번역 결과에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일관성’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영어 단어가 그대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어 ‘무번역’ 항목을 추가하였다.

3. 실험 방법 및 절차

3.1 실험 배경 및 참가자

본 실험연구는 2018년 1학기에 국내 대학교의 통번역 석사 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석사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한일반번역입문’ 수업의 수강생이다.

해당 석사 과정에서는 CAT틀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므로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교과 과정 전체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의 니즈 분석을 위해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한 설문문에 따르면, 참여자 전원의 제 1언어는 한국어이며 입학 전에는 번역 이론이나 제대로 된 실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실험연구의 주요 데이터는 포스트에디팅 과제 텍스트와 학생들이 제출한 코멘터리, 그리고 앞의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과의 인터뷰이다. 영어-한국어 기계번역 오류 유형을 코딩을 통해 분류한 후, 코멘터리 분석으로 주요 카테고리를 도출하여 과제와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기계번역 엔진은 구글(Google)이며 수집 자료의 주된 분석 방법은 기계번역 오류 분석 코딩 작업과 코멘터리 분석을 통한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 카테고리 분류를 바탕으로 한 과제 및 인터뷰 분석이다.

3.2.1 포스트에디팅 과제

포스트에디팅 과제 텍스트로 ‘매뉴얼’을 선정하였다. 정보적 텍스트의 경우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효율적으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마승혜 2018). 또한 매뉴얼과 같은 텍스트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필요로 하는 텍스트 타입이며, 수출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매뉴얼의 번역이 필요하므로 기계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이 적용될 대표적인 텍스트 종류라고 보았다. 과제 텍스트는 프린트 사용 매뉴얼로 실제 모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사무실에서 번역 의뢰를 받은 텍스트이다. 또한 과제의 양은 플리트와 마스로(Plitt & Masselot 2010)가 제시한 평균적인 포스트에디팅 처리량(1100 영어 단어/1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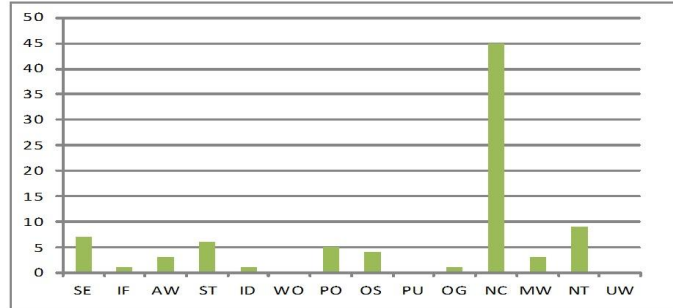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 수업에서는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의 개념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dos and don’ts)’은 언급하지 않았다. 1차시 수업에서는 포스트에디팅을 수업 시간에 진행한 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차시 수업에서는 포스트에디팅 과제를 바탕으로 영어-한국어 기계번역 오류 분석 및 수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과제와 함께 포스트에디팅 브리프²⁾를 제공하였다.

과제 텍스트를 선정한 후에는 연구자 두 명이 코딩을 통해 포스트에디팅 과제의 기계번역 오류를 분류하였다. 이전에 코딩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 한 명과 코딩 경험은 없지만 텍스트 선정과 브리프 작성을 담당하여 텍스트 이해도가 높은 또 다른 연구자 한 명이 <표 3>의 코드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ReCal이 사용되었다. 신뢰 평가도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나, 뉴엔돌프(Neuendorf 2002)는 0.90 이상일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0.80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2) 포스트에디팅 브리프에는 사용할 기계번역 도구(Google Translate), 텍스트의 예상 독자들과 포스트에디팅의 목적, 과제 제출 기한을 명시하였다. 특히 지정된 기계번역 이외의 엔진이나 번역 메모리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해당 텍스트의 기계번역 출력 결과를 통제하였다. 브리프 하단에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코더간 신뢰도는 0.83(83.186%)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코딩 데이터는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기계번역 오류 코딩 분석 (세로축은 빈도수)



연구자 두 명의 코딩을 분석한 결과(〈그림 2〉 참조), 가장 많이 발견된 기계번역 오류는 일관적이지 않은 단어 사용(NC)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무번역(NT),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단어(SE), 문체(ST), 구 차원의 어순 문제(PO), 기타 통사구조 오류(OS)가 있었다.

〈표 4〉 NC와 관련된 코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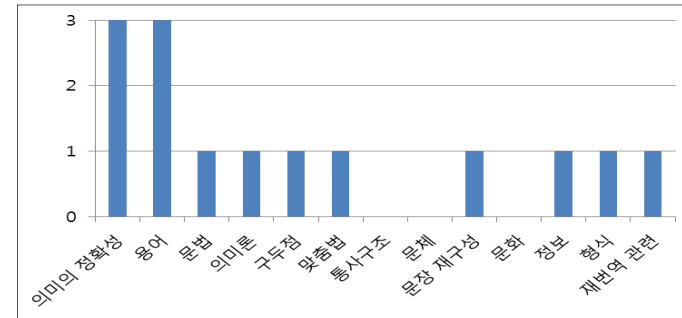
ST 1	MT	코딩
The positioning control unit did not answer…….	위치제어장치가 캐리지 위치 지정의 시작 단계에서 정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NC
The positioning control unit did not answer…….	포지셔닝 제어 유닛이 캐리지 위치 지정의 최종 단계에서 정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NC
The positioning control unit did not answer…….	포지셔닝 컨트롤 유닛이 벨트 포지셔닝의 시작 단계에서 정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NC

위의 <표 4>의 예시처럼 NC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positioning control unit’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결과물(위치제어장치, 포지셔닝 제어 유닛, 포지셔닝 컨트롤 유닛)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포스트에디팅 코멘터리

과제 수행 뒤 학생들에게 포스트에디팅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코멘터리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번역을 마친 후 자신의 번역 전략이나 용어 선택 및 문장 구성의 근거, 특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번역 코멘터리(García Álvarez 2007)를 제출해 왔다. 학생 한 명당 A4 두 장에서 세 장 분량의 코멘터리를 작성하였다.

〈그림 3〉 가이드라인 항목 중 가장 많이 적용한 항목 (복수 응답, 세로축은 응답수)



학생들이 제출한 코멘터리를 보면 11명 중 9명의 학생이 용어 일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는 3.2.1에서 제시된 기계번역 오류 유형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NC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용한 두 가지 항목(〈그림 4〉 참조)이 ‘의미의 정확성’과 ‘용어’인 점을 고려할 때, 기계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오류 중 NC와 NT를 해결하기 위해 ‘용어’ 항목을, SE를 수정하기 위해 ‘의미의 정확성’ 항목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반구조적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 선형적인 주제(a priori themes)를 정하여 연역적인 접근을 취하기 위해, 코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카테고리 도출하였다. 코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카테고리는 <표 5>와 같다.

<표 5> 코멘터리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카테고리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항목 혼란	‘의미의 정확성’과 ‘의미론’, ‘의미의 정확성’과 ‘용어’, ‘의미의 정확성’과 ‘정보’, ‘문법’과 ‘통사구조’, ‘맞춤법’과 ‘문법’과 ‘구두점’
항목 해석의 어려움	‘의미의 정확성’, ‘의미론’, ‘구두점’, ‘형식’, ‘재번역’ 관련
항목 통합 제안	‘의미의 정확성’과 ‘용어’와 ‘정보’, ‘맞춤법’과 ‘문법’과 ‘구두점’
용어 항목 세분화 제안	‘전문 용어 검색’, ‘용어의 일관성’, ‘독자에 대한 고려’
하위 항목 제안	‘문법’의 하위항목으로 ‘시제’, ‘정보’의 하위항목으로 ‘누락’

코멘터리 분석 결과 항목 간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적용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많았고, 항목 자체의 해석이 어렵다는 의견도 의미의 정확성, 의미론 등 몇몇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항목 통합 제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계번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오류가 용어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용어 항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3.2.3 회고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

회고 인터뷰는 과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행하였다. 이는 과제를 수행한 기억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반구조적인(semi-structured)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총 세 명으로,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한 1명, 코멘터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1명,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1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에 따른 금전적 보상,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소요 시간은 1명 당 약 1시간 정도로, 학생의 동의를 거쳐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가이드라인 항목의 해석에 관한 질문이 주된 내용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쿠폰을 사례로 지급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 두 명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현장코딩(Brinkmann and Kvale 2015)³⁾을 시행하였다. 현장코딩을 시행함으로써 인터뷰 이전에 마련

한 선형적 주제로 연역적 접근을 취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부상한 코드(emerging code)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후에는 연구자 세 명이 학생 A, B, C의 인터뷰 내용을 각각 전사한 뒤 스크립트를 두 개씩 코딩을 하였다. 본 연구는 총 여섯 개의 코딩된 전사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 2>에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5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13개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했는지를 과제와 코멘터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터뷰 대상자 세 명은 학생 A, B, C로, 코멘터리 및 과제를 언급할 때는 학생 1, 학생 2 등으로 기술하였다.

4.1 의미의 정확성 : 원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항목 간 혼란이 보고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항목이 바로 ‘의미의 정확성’이다. 학생 A는 인터뷰에서 의미의 정확성이 어휘, 정보 항목과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는 측면이 많아 혼란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학생 A, B, C 모두 의

3) 현장코딩(in-situ coding)은 연구자들이 해당 코드를 미리 숙지한 뒤 인터뷰 현장에서 바로 코딩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킨제이 외(Kinsey, Pomeroy & Martin 1948)처럼 코딩 결과의 정량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인터뷰 내용을 정량화한다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 방법으로는 각광받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화를 위해서 현장코딩한 것이 아니다. 인터뷰 전에 코멘터리 분석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선형적 주제를 도출하였으므로, 이를 인터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현장코딩을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생생히 기억할 때 해당 코드를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역적으로 인터뷰에 접근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미의 정확성은 어휘의 정확성,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획득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항목 간 통합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 B는 의미의 정확성을 한국어 표현의 정확성으로 해석하고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거나”,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 항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미의 정확성을 원문의 의미를 옮기는 ‘등가’의 측면에서 바라본 학생 A, C와는 반대되는 의견으로, 항목 해석에 충돌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미의 정확성 항목은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여타 항목과 구분 없이 제시되어 있어 그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또한 ‘의미’라는 용어가 들어간 다른 항목과 혼동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수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정확성’이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교의 준거점이 원문임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4.2 어휘: 주요 어휘가 정확해야 함

코멘터리와 인터뷰에서 모두 기계번역의 비일관적 어휘 사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학생 8의 경우, “문장구조가 매우 일치하는 상황에서 용어 일치를 못 시키는 것을 보니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계번역 품질이 낮아 번역가로서 안도감을 느꼈다”고 코멘터리에 기술하기도 했다. 어휘의 경우 일관성 혹은 통일성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학생 B), 어휘가 정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의미의 정확성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학생 A)도 있었다. 본고 3.2.1의 <그림 2>에서 제시된 기계번역 오류 코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영어-한국어 기계번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어휘의 일관성이다. 학생 B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체와 형식 항목에서도 일관성을 고려했다고 밝혀 ‘일관성’을 상위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음차 번역된 어휘를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학생 두 명은 “전문가들은 무엇을 더 쓰지?”라는 고민과 “업계 사람이 제일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한국어 프린터 매뉴얼을 검색하고 공급자 입장에

서 쓰인 해당 비교텍스트를 따랐다고 응답했다. 번역 시 번역 상황과 마찬가지로 독자 및 번역의 목적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포스트에디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독자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3 문법: 정확해야 함

‘문법’ 역시 다른 항목과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A는 문법 항목에 구두점과 맞춤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항목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영어로 ‘grammar’라고 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반면(예컨대, subject-verb agreement), 한국어 문법은 그 범위를 가늠하기 힘들다고도 밝혔다. 학생 B와 C 역시 문법, 맞춤법, 구두점이 영어 단어로 들었을 때와 직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고 서술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한국어 간 용어의 범위 차이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인터뷰에서 spelling, punctuation, grammar라는 영어 개념 사이에서 혼란을 보고한 학생은 없었다. 반면 한국어의 맥락에서는 문법-통사구조, 맞춤법-문법-구두점 등에서 학생들의 항목 혼란이 보고되었고, 이것이 “문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구두점 맞춤법 이런 것이 좀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항목 통합 제안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문법-맞춤법-구두점-통사구조가 도착언어권에 맞게 통합,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4 의미론: 정확해야 함

‘의미론’은 항목 자체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보고된 항목이다. 학생 B의 경우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대사인 “밥은 먹고 다니냐”를 예시로 들면서 이 대사가 축어적으로 번역이 되었을 경우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C 역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맥상 맞지 않는 번역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학생 A는 의미론을 ‘의미 전달력’, 즉 전체적인 흐름이나 유창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체나 형식처럼 목표 문화권의 텍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

목으로 이해했다고 서술했다.

학생 A, B, C 모두 해당 항목의 해석에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맥’이나 ‘맥락’,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의미론을 이해했다는 공통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완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분야인 어휘적 차원에서의 의미론(lexical semantics)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적 차원의 의미론은 어휘의 항목에서 다루되, ‘전체적인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론은 ‘의미’ 항목에서 다루고자 하며, 후자에서는 포스트에디팅 된 텍스트 내용의 유기성, 논리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학부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학생조차도(학생 9) ‘의미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항목의 이름으로 ‘의미론’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4.5 구두점: 정확해야 함 (원문의 하이픈은 붙임표 혹은 다른 문장부호로 적절히 대체해야 함)

‘구두점’은 4.3에서 기술한 문법 항목과 혼선이 있는 항목이다. 학생 C는 구두점을 문법의 하위 항목으로 생각하고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구두점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옹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항목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다른 항목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현행 한글 맞춤법은 ‘문장 부호(구두점)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맞춤법과 구두점을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한국어의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구두점을 맞춤법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맞춤법과 구두점을 통합하는 대신 두 항목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한 개념이라는 점을 가이드라인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항목의 배치 등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

4) 영어의 punctuation은 한국어에서 문장부호, 혹은 구두점이라고 불리며(김도훈 2013: 184) 현행 한글 맞춤법은 문장부호로 통칭한다.

4.6 맞춤법: 기본 규칙이 적용됨

‘맞춤법’ 항목 역시 ‘spelling’과의 범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학생의 답변이 있었다. 학생 C는 영어의 스펠링은 단순히 ‘철자’를 떠오르게 하는 반면, 한국어의 맞춤법은 단순한 오·탈자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학생 A와 B는 모두 띄어쓰기가 문법 항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나, 학생 A의 경우 인터뷰에서 띄어쓰기가 “맞춤법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혼란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 5장’이 ‘띄어쓰기’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띄어쓰기는 맞춤법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 가이드라인에 띄어쓰기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학생들이 기계번역 결과물의 띄어쓰기 오류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의 맞춤법 항목에 띄어쓰기 등의 세부사항을 적절히 기술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 사실 맞춤법은 국어학의 한 갈래인 문자론에 속하는 부분으로 문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진다(이익섭 2006). 따라서 두 개념은 개별 항목화될 수 있으나 한글 맞춤법의 방대한 내용 특성상 국어 교육에서 맞춤법은 문법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박종미 2015: 91), 맞춤법 자체의 학습 및 이해에 문법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ibid.: 100) 학생들이 두 항목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춤법을 문법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4.7 통사구조: 정확해야 함

학생 A와 B는 ‘통사구조’의 대표적인 예로 주술호응의 문제를 든 반면, 학생 C는 주술호응을 수정할 때는 맞춤법 항목을 적용했다고 응답한 후에 통사구조에 대해서는 “Syntax(통사구조)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학생 8은 코멘터리에서 통사구조라는 항목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번역투’의 문장까지 통사구조의 문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사구조 항목에 대한 설명과 예시 제공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 A의 경우 문법 영역인 조사의 수정을 통사구조의 수정으로 이해해 문법과 통사구조 항목 간 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익섭(2006: 28)은 문장

의 구조와 주술호응 등을 다루는 통사론이 문법론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법론이 광의 및 협의의 모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의 범주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과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어 맥락에서 통사구조와 문법 간 항목 혼란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의 범주의 분류에 따라 통사구조 또한 문법의 하위범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8 문체: 원문에 상응하는 적절한 문체 사용

‘문체’를 문장 전체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서술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학생 A와 B는 텍스트의 어말어미, 반말/존댓말 혹은 서술형/명사형을 선택할 때 비교 텍스트(comparable text)를 참고하였다고 밝혔다. 학생 5는 “영어와 한국어는 특히 문체에 있어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영화 번역시 등장인물의 어투 번역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등 학생들이 언어에 따른 문체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해가 어려운 항목 중 하나일 것이라는 짐작과는 달리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에서 ‘개인적’ 문체를 최대한 배제하고 텍스트 타입 혹은 장르의 문체를 적용하였고, 다른 항목에 비해 불명확한 해석에 대한 보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제목의 기계번역 결과가 명사형이 아닌 문장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문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문체 항목에 대해서 해석의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한 포스트에디팅의 효율성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을 한 결과로 보인다. 비교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문체 항목과 관련하여 학생 A, B, C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문체 항목에서는 ‘한국어로 된 유사한 텍스트’ 조사의 필요성과 더불어, 번역가가 어말어미, 어역 사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9 문장 재구성: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문장 재구성’ 항목은 학생마다 다양하게 해석됐다. 학생 B는 한 문장으로 된 원문이 기계번역 결과물에서 두 문장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져있는” 것을

원문과 같이 다시 한 문장으로 “합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반면 학생 A는 “주술호응이 맞지 않고 내용이 와 닿지 않아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재배열하는 식으로 비교적 광의의 개념으로 해당 항목을 해석하였다. 학생 A는 어느 정도의 재구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고, 학생 2는 단어와 어순을 수정하는 것이 재구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생 10의 경우 이 항목이 기계번역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의 ‘기타: 재번역 수준의 문장 재구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항목과 의미적으로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어 항목 간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 A는 ‘문장 재구성’ 항목을 ‘action’의 의미로 해석하여 포스트에디팅에 적용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생은 기계번역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껴 수정할 필요를 느꼈을 때 ‘문장 재구성’이라는 항목을 적용해 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항목은 여타 항목과 다른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서술한 바처럼 ‘기타’ 항목과도 연결하여 제시해야 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0 문화: 필요 시 수정

본 연구는 정보적 텍스트를 실험텍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매우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문화’ 항목을 적용해 포스트에디팅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학생 A는 성서 번역이나 속담 혹은 관용구 등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시에 문화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학생 B는 같은 텍스트더라도 각기 다른 도착문화권에 맞는 적절한 번역물이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문화’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화라는 항목을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처럼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어휘’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용구나 문화적인 표현, 독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어휘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내용을 ‘어휘’의 항목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11 정보: 완전히 전달해야 함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실험텍스트가 정보 전달 기능이 핵심인 매뉴얼이라는 특성상 번역시 정보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학생 A는 정보가 정확할 때 비로소 텍스트의 정확성이 획득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정확성’과 ‘정보’ 항목의 구분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학생 A와 B는 두 항목이 의미적으로 중복된다는 공통의견을 냈다. 하지만 학생 A는 두 개념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 B는 두 항목이 서로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해 포스트에디팅 작업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 ‘정확성’은 문장 대 문장의 관점에서, ‘정보’는 누락 유무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참여자마다 항목의 해석이 달랐다. 더 나아가 학생 B는 정보 전달이 ‘완전’해야 한다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보가 누락 없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정보의 완결성’이라는 항목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4.12 형식: 정확해야 함

학생 A와 C는 띄어쓰기, 줄 간격, 들여쓰기의 유무, 괄호 사용 등의 맥락에서 ‘형식’을 해석했지만, 학생 C는 더 나아가 ‘계약서’ 등을 언급하며 도착문화권에서 상용되는 텍스트 종류별 양식에 맞춰 번역물을 수정하는 것으로까지 해석을 확대하기도 했다. 학생 2는 ‘형식’이 원문의 형식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면 이를 적용했을 때 한국어 번역본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어-한국어 쌍에 적합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항목으로 꼽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실험텍스트와 함께 배부된 가이드라인에 ‘formatting’이라는 영문을 함께 제공했음에도 학생 B는 이를 ‘예의범절’의 맥락에서 이해했다. 학생은 서신 작성을 예로 들며 ‘Dear’나 ‘Sincerely’등을 써주는 것이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형식을 잘 지킬 때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학생 A는 포스트에디팅에서의 ‘형식’이 어떤 의미인지와 닿지 않는다고 말하며 작업 시 적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형식’ 항목에서 학생들이 간과한 것 중 하나가 원문의 볼드체 유지이다.

기계번역 결과물은 볼드체로 처리된 원문을 볼드체 그대로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에디팅 시 원문의 형식에 맞춰 수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4.13 기타: 재번역 수준의 문장 재구성을 하지 말 것

학생 A, B, C 모두 포스트에디팅이라는 명제를 기반으로 인간의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자신만의 문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계번역물 스타일을 존중하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당 항목을 이해했다. 하지만 학생 B의 경우 실제 포스트에디팅 작업 시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재번역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고, 학생 C는 “‘재’가 두 번 들어가서 헛갈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재번역’과 ‘재구성’이라는 비슷한 표현 자체가 항목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 10은 해당 항목이 ‘문장의 재구성’이라는 항목과 의미가 중첩된다는 의견을 내어 학생마다 항목의 구체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단지 목표 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은 하지 말 것(do not restructure sentences solely to improve the flow of the target text)”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결과에 따른 수정된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한국어 쌍의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해 보고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작적으

5)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2014)이 TAUS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정된 버전을 제시하면서 추가한 항목이다.

로 정리했다. 그 다음 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번역입문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에게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물과 번역 코멘터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한국어 쌍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 기술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항목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항목 순서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예컨대, 원문의 의미전달과 번역 텍스트에서의 논리를 중요시하는 거시적인 항목부터, 세세한 맞춤법이나 형식을 강조하는 미시적인 항목이 뒤섞여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항목(의미의 정확성, 의미론 등)부터 배치하여 점차 구체적인 항목(용어, 문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면 포스트에디터가 가이드라인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은 몇몇 항목(문법, 구두점, 맞춤법 등)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본고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AUS의 가이드라인 항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포스트에디터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지적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위 항목에 유사한 항목들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에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은 의미의 정확성, 의미론, 통사구조 항목 등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호했으며 어떻게 적용할지 어려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석이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 주기도 하였다.

넷째, 포스트에디팅 수행 시 지침사항(introductory paragraph / 이하 IP)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처음부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포스트에디팅을 수행 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먼저 밝히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에디터가 어떻게 에디팅을 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파악 한 후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IP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현재 기계번역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역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 6>의 수정된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로 명명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자 한다.

<표 6>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

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영한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제시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기계번역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트에디팅한 결과이다.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1)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2)포스트에디팅 된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3)단지 목표 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은 하지 않는다. 4)문법과 언어의 사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5)구조적인 틀도 최대한 지켜야 한다.’

항목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의미 (Message)	정확성 (Accuracy)	•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완결성 (Completeness)	• 의도적으로 원문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 (Consistency)	• 텍스트의 응결성을 고려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하고,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으로도 해야 한다. • 텍스트 전체에서 용어나 표현 등이 통일성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언어와 문법 (Language & Grammar)	어휘 (Lexis)	•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언어, 관용구와 속어, 문화적 용어 등의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다.
	통사구조 (Syntax)	• 조사의 사용과 주술 호응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하는 등 문장 구조에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
	맞춤법 (Spelling)	• 오·탈자가 없고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문장부호 (Punctuation)	•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 한국어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하이픈 등의 문장부호는 다른 문장부호로 대체해야 한다.
구조 (Structure)	문체 (Style)	• 어역(register)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 한국어로 된 유사한 텍스트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어말어미로 수정한다.
	형식 (Format)	• 들여쓰기, 여백, 제목 및 소제목 설정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폰트, 글자크기, 볼드체, 밑줄설정, 각주, 목차, 괄호사용 등을 원문과 비교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세부항목	예시 ⁶⁾		
	ST	MT	PE
정확성 (Accuracy)	If an adult is unconscious,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완결성 (Completeness)	(누락) Position yourself in front of the person on their injured side.	환자 앞에서 자세를 취하십시오.	환자의 상처 부위 앞에서 자세를 취하십시오.
	(추가) After being bandaged,	붕대 수술을 받은 후,	붕대를 감은 후,
일관성 (Consistency)	(응결성) There is no age limit to learning CPR. The ability to carry out CPR.....	CPR을 배우는 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심폐 소생술을 수행하는 능력은.....	CPR을 배우는 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은.....
	(통일성) The method for CPR for children is very similar and you can learn these skills in a CPR course.	어린이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방법은 매우 유사하며 CPR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CPR에 대한 방법은 매우 유사하며 CPR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휘 (Lexis)	(전문용어) Making an arm sling	팔 슬링 만들기	팔 삼각건 만들기
	(맥락) An AED is a machine that delivers an electric shock.	AED는 감전을 일으키는 기계로,	AED는 전기 충격을 일으키는 기계로,
	(언어) You can attend a CPR training course.	CPR 교육과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CPR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목적과 상황) To get the breath in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CPR is a module taught to Year 9 students.	CPR은 9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CPR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통사구조 (Syntax)	(주술호응) It is a good idea to take a first aid course so that you can recognise an emergency and give basic first aid.	응급 처치 과정을 수강하면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처치 과정을 수강하면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사) Bandage up the limb,	다리를 붕대에 감고,	다리에 붕대를 감고,
맞춤법 (Spelling)	(띄어쓰기) reduce their pain or...	통증을 줄이거 나	통증을 줄이거나
문장부호 (Punctuation)	(괄호 띄어쓰기) Create a cradle (hammock) around the injured arm.	부상당한 팔 주위에 크래들 (해먹)을 만듭니다.	부상당한 팔 주위에 크래들(해먹)을 만듭니다.
문체 (Style)	(어역) always check the danger to you, any bystanders,	항상 귀하, 주위 사람의 위험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본인, 주위 사람의 위험을 확인하십시오.
	(문체) Things to remember	기억할 물건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형식 (Format)	(소재목 형식) Where to learn first aid and CPR	응급 처치 및 CPR을 배울 곳이 있습니다.	응급 처치 및 CPR 교육 장소
	(볼드체) Using bandages during first aid	응급 처치 중 붕대 사용	응급 처치 중 붕대 사용
	(괄호사용)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 소생술(심폐 소생술)	CPR(심폐 소생술)

수정된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목은 크게 세 개의 대 항목(의미, 언어와 문법, 구조)과 아홉 개의 세부항목(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어휘, 통사구조, 맞춤법, 문장부호, 문체, 형식)으로 구분된다. 고려사항에서 밝혔듯,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체계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추상적인 항목을 상위에 배치함으로써 포스트에디팅 과정의 목표와 지향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했다. 따라서 ‘의미’ 항목을 가장 상위에 배치시켰으며, ‘언어’, ‘문법’, ‘구조’와 같이 구체적이면서 미시적인 항목들을 하단에 배치하였다.

둘째, 항목을 통합하거나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4장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맞춤법과 구두점 등은 문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와 문법이라는 대 항목 내에 세부항목으로 맞춤법, 구두점을 포함시켰으며 구두점 보다는 문장부호로 제시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문장부호로 세부항목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이익섭(2006)의 분류에 따라 문장의 구성과 주술호응에 관한 통사구조도 문법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실험 텍스트가 매뉴얼이라는 특성상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문화’항목을 배제하기 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관용어구’와 ‘문화적 용어’ 등에 한정지에 ‘어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항목명을 변경하고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해석의 모호함이 없도록 제시하였다. 기존 가이드라인 항목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항목은 ‘의미의 정확성’과 ‘의미론’이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의견과 다른 항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정확성’과 ‘의미론’을 포함하는 대 항목으로 ‘의미’라는 새로운 항목명을 제시하고 그 세부항목으로 ‘정확성’과 ‘일관성’을 포함하였다. 이때 ‘일관성’은 ‘텍스트의 응결성(cohesion)을 고려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하고,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이도록 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6) 수정된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제시한 응급 처치 매뉴얼이다. 국제 텍스트는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 예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시가 풍부하면서도 동일한 텍스트 타입(매뉴얼)을 선정하였다. MT 출력 일시는 2018년 5월 31일 오전 11시이며, 원문은 <https://www.betterhealth.vic.gov.au/health/conditionsandtreatments/first-aid-basics-and-drsabc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정보’ 항목 역시 해석의 논란이 있었으므로 세부항목을 ‘완결성’으로 변경한 후 ‘의도적으로 원문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추가를 해서는 안 된다’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제하였다. 본고 3.2.1의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한 기계번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가 용어의 일관성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어뿐만이 아니라 포스트에디팅 된 텍스트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일관성’을 ‘의미’의 세부항목으로 추가했다. 반대로 연구결과에서 다른 항목과 혼란의 여지가 있던 ‘문장 재구성’ 항목은 별도로 항목화하지 않는 대신 포스트에디팅 지침사항(IP)에 간단히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고의 가이드라인은 연구의 대상이 통번역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만큼 미래 포스트에디터를 위해 제작되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로 도출된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은 초보 포스트에디터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실무자에게도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를 위한’이라고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학생은 물론 경력의 유무를 떠나 영한 포스트에디팅을 수행 할 때 도움이 필요한 포스트에디터는 본고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2 연구한계 및 의의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합성 확인이 어렵다.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가 많지 않고 실무자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번역가나 포스트에디터 등 전문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실용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은 매뉴얼이라는 정보적 텍스트에 한정하여 제시되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텍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구글 번역을 기계번역 툴로 사용하였는데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구글 번역의 품질 향상을 감안한다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더 상세하게 업데이트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의 발달로 번역에서 포스트에디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영한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통번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기존 서양어권에서 제시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보다 영어-한국어 쌍에 적합하면서도 한국어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국내 통번역 교육 현장뿐 아니라 국내 실무현장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중철, 한승희 (2018) 「포스트에디팅 측정지표를 통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화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25.
- 김도훈 (2013) 「영어 문장부호 하이픈(hyphen)과 한국어 문장부호 붙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21』 26(1): 183-202.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옥수 (2017) 「한영 기계번역에서 ST의 유형적 특징에 따른 번역 오류 분석」, 『동아인문학』 41: 155-183.
- 박종미 (2015) 「한글 맞춤법 이해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 제3장, 제4장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87-115.
-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이상빈 (2010)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1(3): 1-25.
-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번역』 19(3): 37-64.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83-201.
- 이익섭 (2006)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 Brinkman, Svend and Kvale, Steiner (2014)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s Angeles: Sage.
- Cruse, David Alan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anagan, Marian and Christensen, Tina Paulsen (2014) ‘Testing post-editing guidelines: how translation trainees interpret them and how to tailor them for translator training purpos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57-275.
- García Álvarez, Ana María (2007) ‘Evaluating Students Translation Process in Specialised Translation: Translation Commentary’, *JoSTrans -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7: 139-163.
- Hu, Ke and Cadwell, Patrick (2016) ‘A comparative study of post-editing guidelines’, *Baltic J. Modern Computing* 4(2): 346-353.
- Kinsy, Alfred., Pomeroy, Wardell., and Martin, Clyde (1948) *Sexual behaviou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 Miles, Matthew., Huberman, Michael., and Saldana, Johnny (2013)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third edition, Los Angeles: Sage.
- Mossop, Brian (2014)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euendorf, Kimberly (2011)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Los Angeles: Sage.
- Pérez, Celia Rico (2012) ‘A flexible decision tool for implementing post-editing guidelines’, *Localisation Focus* 11(1): 54-66.
- Plitt, Mirko and Masselot, Francois (2010) ‘A productivity test of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in a typical localisation context’, *The Prague bulletin of mathematical linguistics* 93: 7-16.
- Pym, Anthony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487-503.

- Temizoz, Ozlem (2013) ‘Postediting machine translation output and its revision: Subject-Matter Experts versus Professional Translators’, Ph.D dissertation, Tarragona: University Rovira I virgili University.
- Vilar, David., Xu, Jia., D'Haro, Luis., and Ney, Hermann (2006) ‘Error analysis of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output’, in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Genoa: ELRA.

<인터넷 자료>

에버트란 <http://www.evertran.com/Contents/Company?mnx=7>

- Densmer, Lee (2014) ‘Light and Full MT Post-Editing Explained’, *Moravia*, 19 August. Available at <http://info.moravia.com/blog/bid/353532/Light-and-Full-MT-Post-Editing>
- Victorian Government (2014) ‘First aid basics and DRSABCD’, Available at <https://www.betterhealth.vic.gov.au/health/conditionsandtreatments/first-aid-basics-and-drsabcd>
- O’Brien, Sharon (2011) ‘Introduction to post-editing: Who, What, How, and Where to Next?’, *CNGL*, Available at <https://amta2010.amtaweb.org/AMTA/papers/6-01-ObrienPostEdit.pdf>
- TAUS (2016) ‘TAUS Post-Editing Guidelines’, Available at <https://www.taus.net/think-tank/articles/postedit-articles/taus-post-editing-guidelines>

[Abstract]

**Post-editing Guidelines for English-Korean Language Pairs:
Guidelines and Examples for future Post-editors**

Yoon, Miseon & Kim, Taek-Min & Lim, Jinju & Hong, Seung-Y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chine translation is gaining ground in the translation industry worldwide and English-to-Korean translators have begun paying attention to post-editing. Nonetheless, Non language-specific post-editing guidelines for a general purpose are available; few guidelines provide novice post-editors with a practical guide on language-specific proble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English-to-Korean post-editing guidelines with pragmatic examples. First, various guidelines are analyzed and put into a table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is analysis and initial piloting among researchers, a English-to-Korean post-editing guidelines is formed and applied to a postgraduate translation practicum class. Students refer to the suggested guidelines when carrying out post-editing assignments. Post-editing commentaries composed by students and retrospective interviews are adopted to see whether the guidelines is applicable for a wide range of user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a first English-to-Korean post-editing guidelines based on an empirical method.

▶ Keyword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post-editing guidelines, English-to-Korean post-editing guidelines

▶ 주제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윤미선(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moonyruna@naver.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기호번역, 각색, 기계번역

김택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gimtam92@gmail.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문학번역, 번역교육, 기계번역

임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blim1118@naver.com

관심분야: 페미니즘 번역, 문학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기계번역

홍승연(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hsy8677@hanmail.net

관심분야: 영상번역, 번역과 문화, 번역과 이데올로기, 기계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